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映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政策研究를 주요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시아역할력 및 통일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擘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 세계지역연구센터 (東北亞팀, 東西南亞팀, 美洲팀, 유럽팀),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東北亞연구개발센터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IE)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통상팀과 FTA연구팀, 통일국제협력팀 등 시의적절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KIEP주간세계경제분석」,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3460-1001, 1114 / FAX : 02)3460-1122, 1199
URL : <http://www.kiep.go.kr>

지역리포트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 映 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최근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산업도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Nokia TMC, 한국 HP, 한국 IBM, 컴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킨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일랜드는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영국에 인접한 소규모 농업민국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현재는 OECD 회원국내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오고 있다. 아일랜드가 이렇게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수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여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주도한 데 따른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 자금 및 기술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각종 투자인센티브 외에도 영어사용이 가능하고 저임금인 노동력과 저렴한 운영비용, 저렴한 원거리 통신비용 등도 외국기업들의 투자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도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침체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초부터 IBM, HP, Dell 등 외국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으며, 생산공장도 폐쇄하는 등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전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의 침체 외에도, 아일랜드경제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상승하면서 최근에는 임금이나 건물 및 토지임대료 등도 상승함에 따라 투자

매력도가 그만큼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는 기존과 같이 단순히 컴퓨터조립 및 소프트웨어제품 생산 등 제조중심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전자상거래 및 생명공학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더블린의 “Digital-Hub” 전략도 이러한 아일랜드 정부의 수정된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 요인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고찰해 본 결과 한국의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을 성장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현재 Nokia TMC, 한국 HP, 한국 IBM 등 외국 ICT 기업들의 1년 매출은 1조원을 상회할 만큼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기여도 큰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향상시키고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한국은 아일랜드가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세제혜택이나 각종 자금 및 기술지원 제공보다는 외국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투자환경은 더 많은 외국기업들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정보통신산업도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아일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Digital-Hub” 전략과 같은 21세기에 맞는 추진전략도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도 현재 디지털·미디어 시티(DMC) 조성을 추진중이며, 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진출을 원하는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을 전초기지로 투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차 례

| | |
|---------------------------------------|----|
| 국문요약 | 1 |
| 제1장 서론 | 7 |
| 1. 연구의 목적 | 7 |
|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8 |
| 제2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과 정보사회화 전략 | 10 |
| 1.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 | 10 |
| 2. 정보사회화 전략 | 11 |
| 가. 정보사회화 전략 | 11 |
| 나. 정보사회위원회 설립 | 12 |
| 다. 정보사회화 실행계획 수립 | 14 |
| 라. 주요 추진전략 | 15 |
| 제3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 18 |
| 1. 정보사회화 현황 | 18 |
| 가. 정보사회화 정도 | 18 |
| 나. 휴대폰 및 인터넷 이용률 | 19 |
| 2. 정보통신산업 현황 | 22 |
| 가. 정보통신산업의 구조 | 22 |
| 나. 소프트웨어 산업 | 24 |

| | |
|----------------------------------------------|----|
| 제4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공요인과 정부의 지원정책 | 29 |
| 1.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 29 |
| 가. 외국기업의 기여 | 29 |
| 나.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 | 32 |
| 다. 낮은 운영비용 | 35 |
| 2. 정부의 지원정책 | 37 |
| 가. 담당 정부기관 | 37 |
| 나. IDA의 외국기업 지원 | 39 |
| 다. Enterprise Ireland의 국내기업 지원 | 44 |
| | |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48 |
| | |
| 참고문헌 | 52 |
| | |
| Executive Summary | 54 |

표 차례

| | |
|-----------------------------------------------------|----|
| <표 3-1> 아일랜드의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1997~2000년) | 19 |
| <표 3-2> 인터넷 호스트 수(1997~2000년) | 20 |
| <표 3-3> 국별 ICT 부문 비중 | 22 |
| <표 3-4> 주요 산업별 수출 | 23 |
| <표 3-5> 주요 산업별 매출액 | 24 |
| <표 3-6>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 수출 현황 | 27 |
| <표 3-7> 국가별 소프트웨어 교역 현황(1998년 기준) | 28 |
| <표 4-1> 아일랜드내 외국인투자기업 구성 | 30 |
| <표 4-2> 아일랜드의 지역별 교역 비중(2000년 1월~11월) | 31 |
| <표 4-3> 지역별 수출증가율(2000년 기준) | 31 |
| <표 4-4> 아일랜드의 이민 추이 | 35 |

그림 차례

| | |
|--------------------------------------------------|----|
| <그림 3-1> 아일랜드의 정보사회화 정도(2000년 기준) | 18 |
| <그림 3-2>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가입자 수(1999년 기준) | 20 |
| <그림 3-3>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2000년 10월 기준) | 21 |
| <그림 3-4> 인구 100명당 인터넷 가입자 수(2000년 1월 기준) | 21 |
| <그림 3-5> 아일랜드 ICT 산업의 구조(1997년 기준) | 23 |
| <그림 3-6> 아일랜드 소프트웨어 기업 수 | 25 |
| <그림 3-7> 아일랜드 소프트웨어산업의 매출액 추이 | 25 |
| <그림 3-8> 아일랜드 국내기업의 부문별 소프트웨어(2000년 기준) | 26 |
| <그림 3-9>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산업 고용 추이 | 26 |
| <그림 4-1> 교육시스템 경쟁력 순위 | 33 |
| <그림 4-2> 초등학교 인터넷 이용률(2000년 기준) | 34 |
| <그림 4-3> 시간당 임금수준(2000년 기준) | 36 |
| <그림 4-4> 아일랜드의 ICT 산업 육성관련 정부기관 | 38 |
| <그림 4-5> 對아일랜드 외국기업들의 높은 투자수익률 요인 | 39 |
| <그림 4-6> 미국 투자기업의 국가별 세후 평균 투자수익률 | 40 |
| <그림 4-7> 서유럽국가들의 법인세율 | 41 |
| <그림 4-8> 아일랜드의 ICT 산업 성공요인 | 47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였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이 2000년 하반기 이후부터 침체됨에 따라, 한국의 정보통신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¹⁾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은 여전히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신흥개도국들에 있어서 경제성장을 위한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의 기술개발과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은 2000년 현재 전체제조업에서 36.3%를 차지할 만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소강국으로 21세기 일류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 요인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아일랜드 정부의 지원전략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아일랜드는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농업 외 특별한 기반산업이 없는 농업빈국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산업,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오늘날 미국과 함께 최대 소프트웨어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요인은 무엇보다도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꼽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Nokia TMC, 한국 HP, 한국 IBM, 컴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외국기업들이 정보통신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외국 ICT 기업들

1) 정보통신산업은 2000년 3/4분기까지 2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오다가 2000년 4/4분기부터 급격히 침체되어 2001년에 들어서는 2%대의 성장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은 매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아일랜드 정부가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아일랜드내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부문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들과 관련 연구소들을 직접 방문하고, 관련 문헌 및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북서유럽의 조그만 농업빈국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아일랜드에서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과 아일랜드 정부가 여타 산업들 중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게 된 원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아일랜드 정부가 국민과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정보사회화 전략과 그 실행방안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아일랜드 정부의 정보사회화 전략을 통해 국민들과 기업들이 얼마만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게 되었는지 정보사회화 정도를 살펴보고,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구조와 특히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수출국인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인 외국기업들의 투자 요인과 투자 배경을 분석하고, 아일랜드 정부가 외국기업

들의 유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각종 투자인센티브와 국내기업의 성장을 위한 육성전략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아일랜드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사례가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2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과 정보사회화 전략

1. 정보통신산업 성장배경

아일랜드가 북서유럽의 조그만 농업빈국이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Celtic Tiger”라는 별명을 얻은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접어들면서부터다. 아일랜드경제는 1950년대 전까지만 해도 戰後 유럽의 평균경제성장률인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1960년대 들어와서야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유럽 평균경제성장률인 4%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1973년 구주 공동체(EC) 가입 이후 석유파동과 전세계적인 거시경제불안정 속에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서 정치적인 불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한 지나친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정부부채가 GDP의 120% 이상에 달하는 등 극심한 국가재정난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ICT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1995~2000년 동안 평균 9%대 이상의 OECD 회원국내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고 있다.²⁾³⁾

이와 같이 아일랜드가 ICT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눈부신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외국기업들의 투자에 기인한다. 이러한 외국기업들의 투자는 아일랜드 정부가 세제혜택, 사업보조금 지원 등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이렇게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를 통해 ICT 산업을 육성시킨 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

2) 같은 기간 동안 OECD의 평균경제성장률은 2.7%이다.

3)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2000년 말 현재 24,000달러로 EU 평균의 115%에 달한다.

할 수 있다. 첫째, 농업 외에 특별한 기반산업이 없었던 아일랜드로서는 ICT 산업에서 느낄 수 있는 “clean” 이미지와 농업국가로서 기존에 아일랜드가 가지고 있던 “green” 이미지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둘째, 아일랜드가 외국 ICT 기업들이 기꺼이 투자할 만큼 충분한 투자매력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여타 유럽국보다 젊고 저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과 특히 대다수 국민들이 영어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투자요인이라고 판단했었다. 마지막으로 지리적으로 유럽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일랜드로서는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물류비용 부담이 적은 ICT 산업이 아일랜드의 전략산업으로 적합했었기 때문이다.

2. 정보사회화 전략

가. 정보사회화 전략(1996년)

아일랜드 정부의 정보사회화를 위한 준비는 여타 EU 회원국보다는 늦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들이 정보사회로의 전환과정에 쉽게 적응하고 보다 접근하기 쉬운 인간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행을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1996년 3월 정보사회촉진 위원회(Information Society Steering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이후 1997년 3월 동 위원회는 “Information Society Ireland: Strategy for Actio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일랜드의 첫 정보사회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향후 아일랜드의 정보사회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정비와 기구 및 기관 설립, 그리고 목표들을 제시하였다(틀글 2-1 참조). 이외에도 동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정보사회화 전략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공

공 및 민간부문의 정보통신기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사회위원회 (Information Society Commission)”을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틀글 2-1> 정보사회화 전략에서 제시된 주요 계획안(1996년)

- ▶ 원격통신 (telecommunications) 부문을 담당할 독립적인 규제기구 및 기관 설립
- ▶ 1997년내로 기업과 국민들이 저렴하게 광대역서비스 (broadband services)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 개발
- ▶ 정보사회에서 필요하게 될 콘텐츠의 개발, 공급, 그리고 수출을 전담할 센터 개발
- ▶ 더블린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정보 및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세계 최고의 “가상도시 (virtual city)”로 발전시킴.
- ▶ 다음 2개의 탑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전체차원에서의 정보사회 교육을 실시:
 - ① 학교와 도서관을 ISDN을 통해 연결하는 “사이버학교 (Cyber-Schools)” 개발 프로젝트
 - ②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Knowledge Resource Centres” 설립 프로젝트
- ▶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규강화 등 정보사회를 위한 법적토대 마련

나. 정보사회위원회 설립(1997년)

이후 아일랜드 정부는 1997년 5월 정보사회촉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사회위원회(ISC: Information Society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일랜드의 정보사회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채택되어야 하는지 정부에 대해 자문하고 둘째, 여타국들의 정보사회화 노력을 벤치마크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셋째, 정부기

관 및 민간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인식제고와 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정보사회위원회(ISC)는 설립 이후 아일랜드의 정보사회화와 관련된 권고안이나 계획안을 정기적으로 총리실에 보고해 오고 있다. 1997년 12월 첫보고서인 “First Report of Ireland’s Information Society”⁴⁾를 정부에 제출한 이후 1999년 4월에는 2번째 보고서인 “Second Report of Ireland’s Information Society”⁵⁾를, 2000년 12월에 3번째 보고서인 “Third Report of Ireland’s Information Society”⁶⁾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각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의 정보사회화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새롭게 직면하게 될 주요 분야에 대한 조치 및 계획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정보사회위원회(ISC)는 1996년 첫 정보사회화 전략이 수립된 이후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초단계로서 저렴한 광대역 원격통신서비스 제공, 정보통신기술력 향상, 지적재산권 보호 등 기초적인 정보사회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국민들과 기업들이 이러한 인프라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때 당시 아일랜드가 정보사회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는 국민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정도가 낮다는 것이었다. 정보사회화를 위한 첫 과정인 교육단계 즉,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과 기업들 사이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인식이 정보통신기술 활용이나 활발한 전자상거래 활동과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4) <http://www.infosocomm.ie/reports/report1/>

5) <http://www.infosocomm.ie/reports/report5/>

6) <http://www.isc.ie/thirdreport.html>

다. 정보사회화 실행계획 수립(1998년, 1999년)

1996년 첫 정보사회화 전략이 제시된 이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전략수정이 이루어졌고, 전략을 재정의하고 진척정도를 점검하며, 또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수많은 보고서들이 발표되었다.⁷⁾ 이러한 보고서들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1998년 12월 “Implementing the Information Society: A Framework for Ac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보사회화를 위한 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⁸⁾ 이후 동 보고서와 정부부처간정보사회실행그룹(Interdepartmental Implementation Group on Information society)⁹⁾의 1998년 12월 보고서(A framework for action)에서 제시한 권고안과 제안들을 수렴하여 1999년 1월 “Implementing the Information Society in Ireland: An Action Pla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보사회화 전략의 실행계획안을 수정하였다.¹⁰⁾ 동 보고서에서는 정보사회로의 전화과정에서 중요한 5가지 분야¹¹⁾에 대한 포괄적인 실행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정보사회화를 위해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시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각 과제에 대한 책임부처와 기관들을 명시해 놓고 있다.

7)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http://act.iol.i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s “Statement on Telecommunications: a Key Factor in Electronic Commerce and Competitiveness” (<http://www.forfas.ie/report/ncctelecom.htm>); Reports of Irish Business and Employers Confederation on telecommunications and Governmental policies (<http://www.ibes.ie>).

8) <http://www.irlgov.ie/taoiseach/publication/infosocactionplan/infosocframework.htm>

9) 정보사회촉진위원회의 1997년 3월 보고서에서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위원회로 정보사회화 과정에서의 정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사회위원회(ISC)의 정보사회화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10) <http://www.irlgov.ie/taoiseach/publication/infosocactionplan/infosoc.htm>

11) ① 원격통신 인프라 ② 전자상거래 및 사업기회 개발 ③ 신기술에 대한 접근 개선을 위한 조치 실행 ④ 법적 및 규제적인 조치 ④ 신기술을 통해 공공서비스 이행 현대화

1999년 1월 활동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이에 대한 2개의 진척보고서가 정부부처간정보사회실행그룹에 의해 준비되었다. 동 실행그룹은 1999년 7월 30일 “Progress Implementing the Information Society: Second Report of the Inter-Departmental Implementation Group”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실행계획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resources)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2000년 4월에도 “Progress Implementing the Information Society: Third Report of the Inter-Departmental Implementation Group”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전에 실행해 온 전략들과 향후 정보사회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들을 제시하였다.¹²⁾

라. 주요 추진전략

1) 정보사회화 기금설립

아일랜드 정부는 1999년 7월 조속한 정보사회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정부기관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사회화 관련 개발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사회기금(The Information Society Fund)을 설립하였다. 동 기금은 1999년 동안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총 17개 프로젝트에 대해 약 266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에도 3,800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2) 전자정부 추진

최근 아일랜드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전자정부(E-government)를 구현하는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12) 전자정부 구현, 디지털 TV 실행,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제고; 고위급관리들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정보사회화 훈련.

“REACH Initiative”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해 오고 있다.¹³⁾ REACH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과 기업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둘째, 공공서비스의 정보통신 기술화를 통해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서비스의 남용을 예방하는 것이다.

3) 정보사회화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촉진

정보사회위원회(ISC)는 모든 국민과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에서 창출되는 기회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사회화 전략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0년 6월 “Discussion Forum”을 웹사이트상에 개설하였다.¹⁴⁾ 동 포럼에서는 정보사회에 관한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이나 기업들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사회위원회(ISC)는 이러한 의견들을 정보사회화 전략 수립시 반영해 오고 있다.

4) ICT School 2000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 및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 오고 있다. 아일랜드 교육과학부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대비하여 정보통신관련 신기술을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시킬 수 있도록 1997년 “ICT Schools 2000”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National Centre for Technology in Education(NCTE)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¹⁵⁾¹⁶⁾ 주요 목적은 학교, 지역공동체, 대학, Eircom, IBM, Intel과 같은 공공 및 민간기업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및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및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ICT School 2000 프로그램의 실행

13) <http://www.reach.ie/>

14) <http://www.isc.ie/ubbcbgi/Ultimate.cgi?action=intro>

15) <http://www.ncte.ie>

16) Network for Irish schools ScoliNet (<http://www.scoilnet.ie>)와의 협력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이며, 동 프로그램의 일부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다. 2000~2002년 동안 8,100만 아일랜드 파운드 상당의 자금이 동 프로그램에 지원되었다.¹⁷⁾

17) 동 자금은 ▶ 모든 학급이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 학생당 컴퓨터 수를 대폭 늘리고, ▶ 교사들에게 포괄적인 ICT 관련 훈련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 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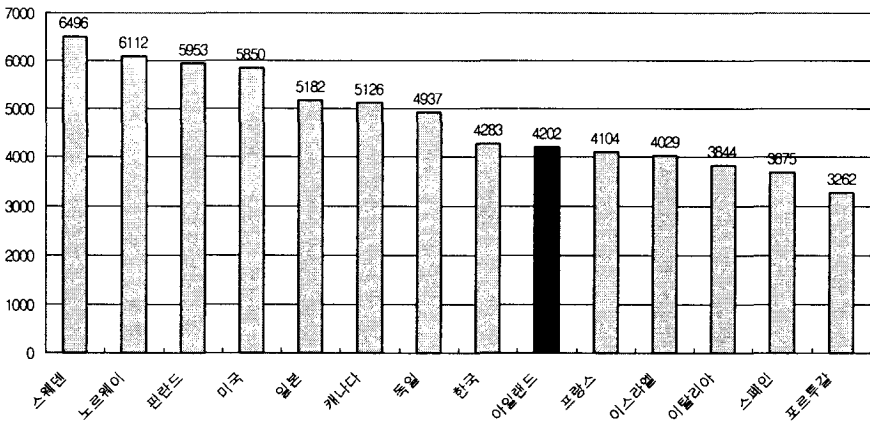
제3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정보사회화 현황

가. 정보사회화 정도

아일랜드는 1996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아래 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당시만 해도 아일랜드는 OECD 회원국내 정보사회화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으며, ICT에 대한 인지도나 이에

(그림 3-1) 아일랜드의 정보사회화 정도(2000년 기준)



주: ISI는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정도에 따라 1등급(3,500점 이상), 2등급(2,000점 이상), 3등급(1,000점 이상), 4등급(1,000점 이하)로 분류됨.

자료: IDC/World Times(2001).¹⁸⁾

18) <http://www.worldpaper.com/2001/jan01/ISI/2001%20Information%20Society%20Ranking.html>

대한 투자와 교육 및 훈련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아일랜드의 적극적인 정보사회화 노력에 힘입어 EU내 평균수준의 정보사회화는 달성하게 되었다. IDC/World Times(2001)의 Information Society Index¹⁹⁾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2001년 현재 전세계 55개국 중 20위의 정보사회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타 선진유럽국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3-1 참조).²⁰⁾

나. 휴대폰 및 인터넷 이용률

아일랜드 정부의 정보사회화 노력에 힘입어 아일랜드는 휴대폰 및 인터넷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 여타 EU 회원국들의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아일랜드의 휴대폰 가입자수는 1997년에는 전체인구의 약 14%이었으나 2000년에는 66.7%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최대 휴대폰 가입국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표 3-1, 그림 3-2 참조).

〈표 3-1〉 아일랜드의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1997~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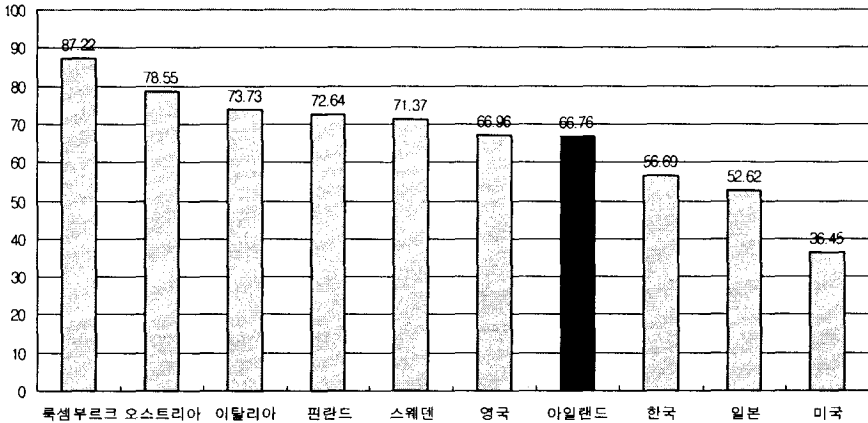
| 1997 | 1998 | 1999 | 2000 |
|------|------|------|------|
| 14.4 | 25.5 | 44.7 | 66.7 |

자료: OECD(2001a), p. 86, ITU(2001), P. 3.

19) ISI는 IDC와 World Times, Inc가 공동으로 매년 55개국을 대상으로 정보사회화를 측정 한 지수로,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정보이용 등과 관련된 23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정보사회화를 평가하고 있다.

20) 1999년에는 15위를 기록하였다.

〈그림 3-2〉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가입자 수(1999년 기준)



자료: ITU(2001),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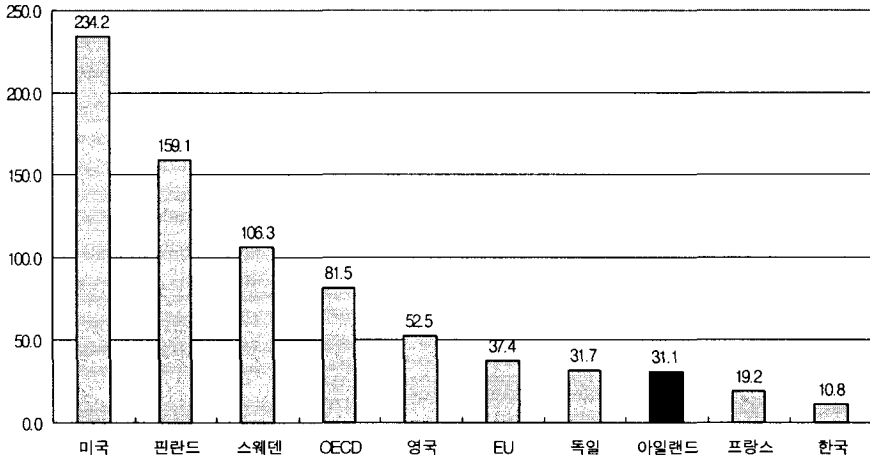
인터넷 이용은 EU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1997년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가 13개에서 2000년에는 31.1개로 4년 동안 무려 58%나 증가하는 등 인터넷 이용률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3-2, 그림 3-3 참조). 그러나 인터넷 가입자 수는 한국, 스웨덴 등과 비교해 볼 때 절반정도 수준이다(그림 3-4 참조).

〈표 3-2〉 인터넷 호스트 수(1997~2000년)

| | 1997.7 | 1998.7 | 1999.7 | 2000.7 | 2000.10 |
|-----------------|--------|--------|--------|--------|---------|
| 인터넷 호스트 수 | 47 | 48 | 61 | 105 | 116 |
| 인구 1000명당 호스트 수 | 13.0 | 12.8 | 16.4 | 28.1 | 3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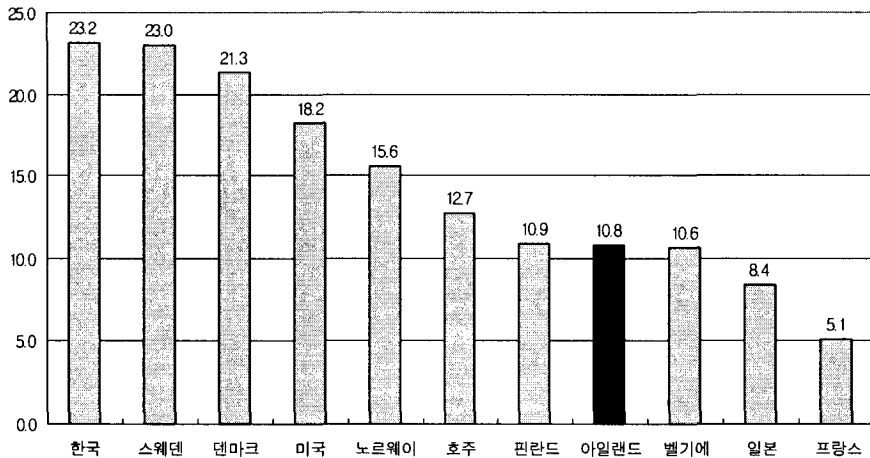
자료: OECD(2001a), p. 112.

〈그림 3-3〉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2000년 10월 기준)



자료: OECD(2001a), p. 100.

〈그림 3-4〉 인구 100명당 인터넷 가입자 수(2000년 1월 기준)



자료: OECD(2001a), p. 98.

2. 정보통신산업 현황

가. 정보통신산업의 구조

아일랜드의 ICT 부문은 1999년말 현재기준으로 전체 GDP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EU 회원국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ICT 강국인 미국이나 핀란드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아일랜드의 ICT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표 3-3 참조).

아일랜드 ICT 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제조업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부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5 참조). 산업별 수출증가율도 소프트웨어 제품의 수출증가율이 2000년 36%로 여타 주요 산업에서의 수출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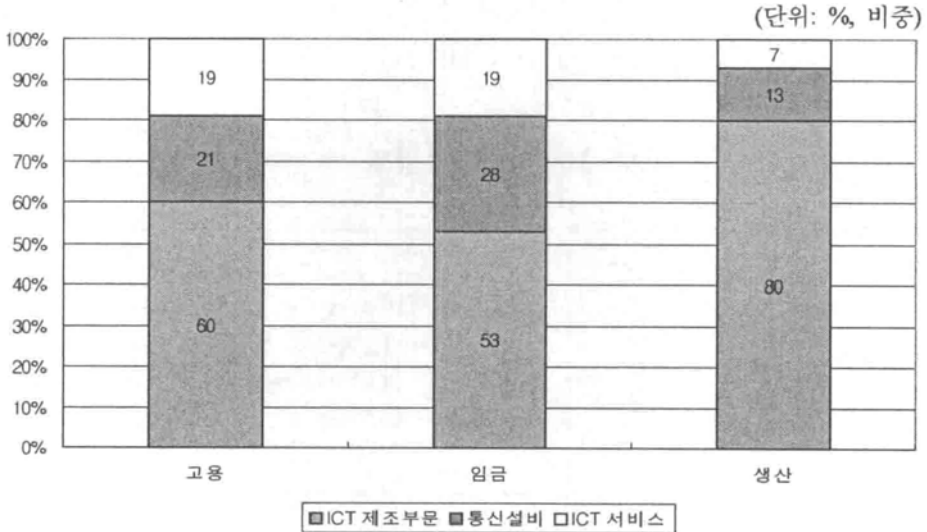
(표 3-3) 국별 ICT 부문 비중(GDP 대비)

(단위: %)

| | 1995년 | 1999년 | 1995~1999년 변화율 (% 포인트) |
|-------|-------|-------|---------------------------|
| 아일랜드 | 6.5 | 7.6 | 1.1 |
| 미국 | 5.3 | 6.8 | 1.5 |
| 스웨덴 | 4.3 | 6.5 | 2.2 |
| 핀란드 | 4.3 | 5.8 | 1.5 |
| 영국 | 5.2 | 5.6 | 0.4 |
| 네덜란드 | 4.3 | 5.0 | 0.7 |
| 오스트리아 | 4.7 | 4.8 | 0.1 |
| 포르투갈 | 3.4 | 4.3 | 0.9 |
| EU 평균 | 3.6 | 4.2 | 0.6 |
| 벨기에 | 3.3 | 4.1 | 0.8 |
| 독일 | 3.4 | 3.9 | 0.5 |
| 이탈리아 | 3.3 | 3.7 | 0.4 |
| 스페인 | 2.8 | 3.6 | 0.8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1), p. 62.

(그림 3-5) 아일랜드 ICT 산업의 구조(1997년 기준)



자료: OECD(2000c), p. 87.

〈표 3-4〉 주요 산업별 수출

(단위: 백만 유로)

| 시 장 | 1999 | 2000 |
|---------|-----------------|----------------|
| 소프트웨어 | 1,004.9 (21.5%) | 1,402 (36%) |
| 산업생산재 | 2,222.2 (10.9%) | 2,193 (18.1%) |
| 소비재 | 1,064.5 (11.6%) | 651 (8.0%) |
| 식품/자연자원 | 7,478.9 (6.3%) | 6,719 (10.4%) |
| 합계 | 11,770.5 (8.8%) | 10,965 (14.5%) |

주: ()안은 수출성장률.

자료: Enterprise Ireland(1999, 2000).

이와 같이 아일랜드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하게 된 것은 대다수의 현지 투자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유럽 내 전체 소프트웨어 제품의 30%가 아일랜드에서 생산되고 있다. 아일랜드

국내기업들의 대다수도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기업들의 매출성장률면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매출성장률은 2000년 31.7%로 여타 주요 산업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표 3-5 참조).

(표 3-5) 주요 산업별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 시장 | 1999 | 2000 |
|---------------|---------------|----------------|
| 소프트웨어 및 국제서비스 | 1,700 (19.8%) | 2,533 (31.7%) |
| 산업생산 | 7,700 (11.3%) | 6,631 (14.1%) |
| 소비재 | 2,700 (8.0%) | 1,206 (9.4%) |
| 식품/자연자원 | 13,100 (3.5%) | 13,339 (8.4%) |
| 합계 | 25,200 (7.1%) | 23,709 (12.1%) |

주: ()안은 매출성장률.

자료: Enterprise Ireland(1999,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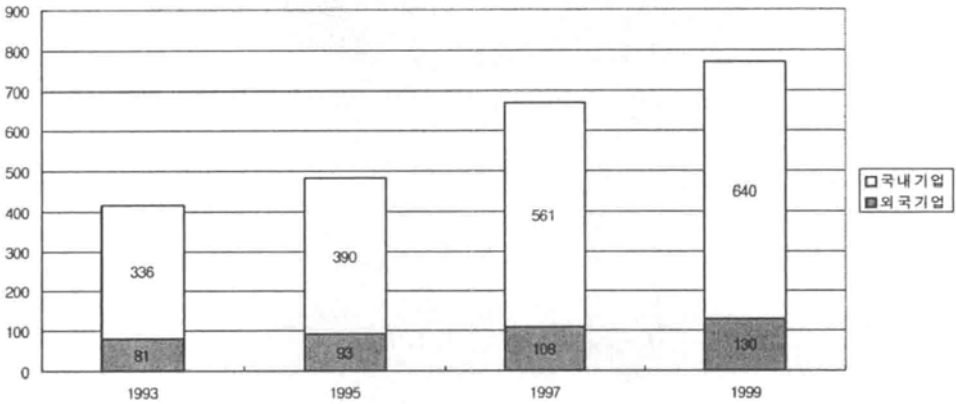
나.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1999년 기준으로 총 770여 업체중에서 국내기업이 640여개이고 외국기업은 130여개로 국내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다(그림 3-6 참조). 그러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1999년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 총매출액 60억 아일랜드 파운드 중 약 50억 아일랜드 파운드 상당이 외국기업의 매출액이다. 외국기업이 아일랜드 전체 소프트웨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기업이 아일랜드의 전체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다(그림 3-7 참조).

이와 같이 국내기업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의 매출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만큼 국내기업들의 기술력이나 마케팅 능력이 외국기업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대다수 국내기업들은 외국기업들이 다루지 않는 하부분야(sub-sector)에 주력하고 있다. 아일랜드

국내기업들의 소프트웨어부문은 주로 원격통신제품(telecommunications products), 디지털 미디어/e-Learning, banking, 인터넷툴 및 적용도구, 소프트웨어 도구(software tools) 등 특화된 부문에 주력하고 있다(그림 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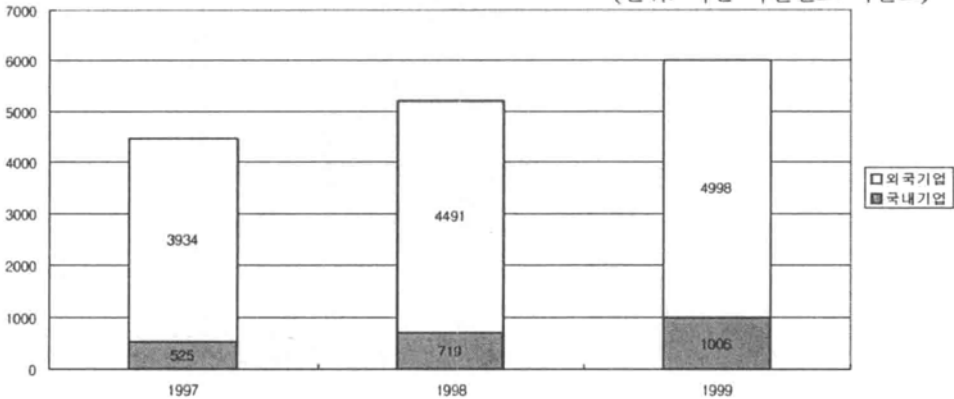
〈그림 3-6〉 아일랜드 소프트웨어 기업수



자료: Patrica McLister(2001), p. 6.

〈그림 3-7〉 아일랜드 소프트웨어산업의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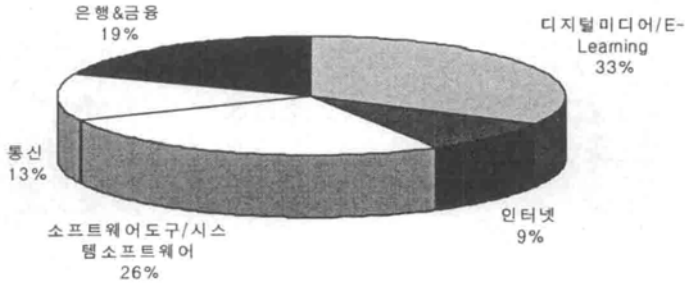
(단위: 백만 아일랜드 파운드)



자료: National Software Directorate.²¹⁾

21) <http://www.nsd.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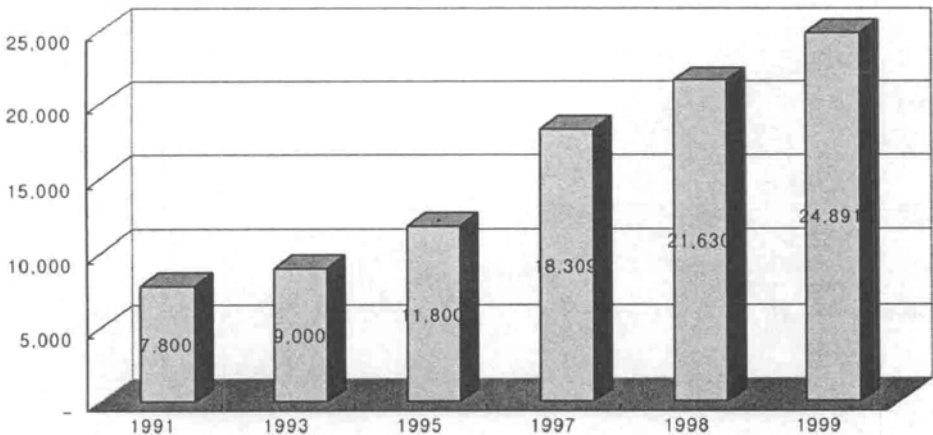
〈그림 3-8〉 아일랜드 국내기업의 부문별 소프트웨어(2000년 기준)



자료: Patricia McLister(2001), p. 10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현재 24,891명이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중 국내기업이 45%, 외국기업이 55%로 고용도 외국기업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3-9 참조).

〈그림 3-9〉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산업 고용 추이



자료: National Software Directorate.²²⁾

22) <http://www.nsd.ie>

아일랜드는 1999년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소프트웨어 수출국이다.²³⁾ 1999년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 수출은 51억 3,400만 파운드(약 60억 달러)로 이중 80% 이상을 수출하고 20% 정도만이 국내에서 소비되었다. 수출에 있어서도 국내기업보다는 외국기업들의 수출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제품 수출은 1999년 기준으로 45억 1천만 파운드로 전체 소프트웨어 수출 중에서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 정부 특히 Enterprise Ireland의 국내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으로 수출증가율은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표 3-6, 표 3-7 참조).

〈표 3-6〉 아일랜드의 소프트웨어 수출 현황

(단위: 백만 아일랜드 파운드)

| | 1997 | 1998 | 1999 ¹⁾ |
|------|-------|-------|--------------------|
| 국내기업 | 365 | 446 | 624 |
| 외국기업 | 3,852 | 4,168 | 4,510 |
| 합계 | 4,217 | 4,614 | 5,134 |

주: 1) 추정치.

자료: National Software Directorate.²⁴⁾

23) 2000년 이후 자료는 입수가 불가능하지만 OECD나 IDC는 2000년에는 아일랜드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수출국이 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 <http://www.nsd.ie>

〈표 3-7〉 국가별 소프트웨어 교역 현황(1998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 수출 | 수입 | 수지 |
|------------|-------|-------|-------|
| 아일랜드 | 3,289 | 279 | 3,011 |
| 미국 | 2,956 | 639 | 2,318 |
| 영국 | 664 | 1,056 | -392 |
| 네덜란드 | 609 | 335 | 274 |
| 독일 | 513 | 966 | -453 |
| 프랑스 | 319 | 864 | -545 |
| 핀란드 | 35 | 80 | -44 |
| 한국 | 29 | 213 | -184 |
| EU 15개국 전체 | 5,927 | 5,453 | 474 |
| OECD 전체 | 9,631 | 8,941 | 690 |

자료: OECD(2000), p. 20에서 재구성.

제4장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성공요인과 정부의 지원정책

1. 정보통신산업의 성공요인

인구 370만 명의 농업국가였던 아일랜드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외국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아일랜드 정부가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도 중요한 투자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외에도 저임금과 저렴한 통신비 등 운영비용이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낮다는 것도 외국기업이 아일랜드에 투자하는 이유중 하나이다.

가. 외국기업의 기여

아일랜드의 ICT 산업은 국내기업의 성장보다는 외국기업들 특히 미국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발전하게 된 것이다(표 4-1 참조).²⁵⁾ 2000년 현재 아일랜드에는 약 1,300여 개의 세계 정상급 기업들이 약 164,000명의 아일랜드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119억 6천만 달러를 아일랜드 경제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²⁶⁾ 아일랜드내 외국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산업으로는

25) 수많은 외국 ICT 기업들은 그들의 제품생산 및 제품개발공정, 마케팅, 국제물류센터, 고객관리를 위한 금융체계, 기술지원활동을 위한 기지로서 아일랜드를 이용하고 있다.

26) IDA Ireland(2000), p. 12.

소프트웨어산업²⁷⁾, 전자산업²⁸⁾, 콜센터²⁹⁾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기업 특히 미국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일랜드 정부가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에는 약 4,500만 명 이상의 아일랜드인이 살고 있으며, 또한 아일랜드에 투자하고 있는 대다수 미국기업들의 최고책임자들도 아일랜드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미국기업들의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는 모국에 대한 투자개념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1〉 아일랜드내 외국인투자기업 구성

| 국가 | 비중(%) |
|------|-------|
| 미국 | 43 |
| 영국 | 15 |
| 독일 | 14 |
| 네덜란드 | 4 |
| 일본 | 4 |
| 캐나다 | 3 |
| 프랑스 | 3 |
| 스웨덴 | 2 |
| 이탈리아 | 2 |
| 스위스 | 2 |
| 기타 | 8 |

자료: PricewaterhouseCoopers (2001), p. 5.

아일랜드의 지역별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2000년에는 전체수출 중 22%로 영국보다는 낮지만(표 4-2 참조), 수출증가율로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영국에 대한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27) 2000년 말 기준으로 800여개 이상의 외국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있으며, 평균수익은 70억 아일랜드 파운드를 기록하고 있다.

28) 2000년 말 기준으로 400여개 이상의 외국기업들이 있으며, 평균 150억 아일랜드 파운드의 수익을 내고 있다.

29) 2000년 말 기준으로 70여개의 콜센터가 있다.

나고 있다(표 4-3 참조). 이는 최근 미국기업들의 아일랜드를 생산기지로 하여 미국으로 다시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한 데 따른 것이다.

〈표 4-2〉 아일랜드의 지역별 교역 비중(2000년 1월~11월)

| 지역 | 수출 | 수입 |
|-----------|-----|-----|
| 영국 | 21% | 31% |
| 여타 EU 회원국 | 37% | 24% |
| 미국 | 22% | 17% |
| 기타 | 20% | 28% |

자료: 아일랜드 통계청.

〈표 4-3〉 지역별 수출증가율(2000년 기준)

(단위: 백만 유로, %)

| 시장 | 2000 |
|------------|----------------|
| 여타 EU회원국 | 2,938 (17.6%) |
| 영국 및 북아일랜드 | 4,464 (10.4%) |
| 미국 | 1,461 (25.7%) |
| 아시아/여타 지역 | 1,256 (18.2%) |
| 합계 | 10,120 (15.5%) |

자료: Enterprise Ireland(2000).

그리고 Microsoft가 1984년 유럽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를 아일랜드에 둔 이후 IBM, Oracle, Novell, Sun, Compaq, Intel, HP, Gateway, General Semiconductor 등 수많은 미국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유럽본부나 생산기지를 두게 되었다.³⁰⁾ 이는 Microsoft가 아일랜드에 투자하여 성공함에 따라 여

30) 외국기업들은 아일랜드를 전초기지로 하여 유럽뿐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까지 진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기업들은 아일랜드에 생산공장뿐 아니라 연구단지나 마케팅기지도 설치하고 있다.

타 ICT 기업들도 아일랜드에 투자하게 된 것으로, 즉 구전효과의 힘이 컸다고 볼 수도 있다.

나.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

수많은 외국 ICT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에 기인하는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외국기업들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고 그들의 기술을 뒷받침할 만한 양질의 노동력이 아일랜드에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노동력은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이직률은 유럽전체의 평균보다도 낮아 그만큼 노동에 대한 도덕성도 높다.

아일랜드는 25세 이하 인구가 전체인구의 40%로, 유럽 평균이 30%임을 감안할 때 유럽 내에서 노령화 속도가 가장 느린 곳이기도 하다.³¹⁾ 그리고 아일랜드는 자체 모국어인 애란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 국민중 90% 이상이 영어사용이 가능하며, 대학생 이상은 대부분 영어 외에 1개이상의 외국어능력도 가지고 있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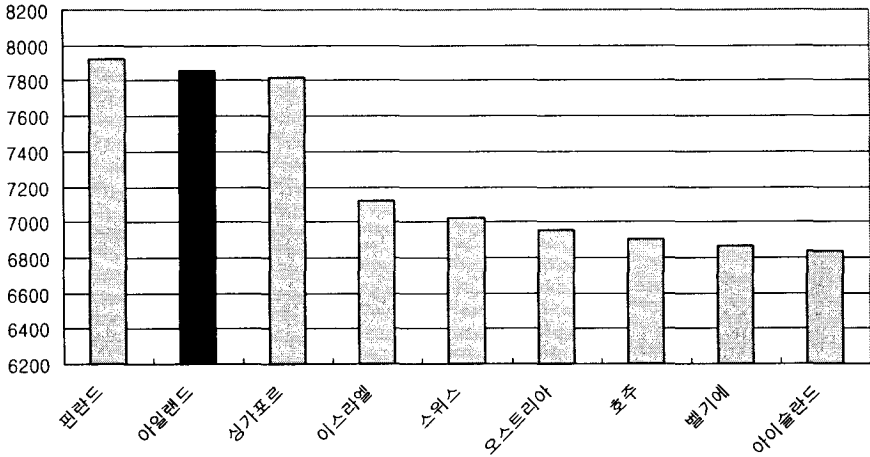
그리고 아일랜드의 교육시스템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2001년 IMD의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가 교육경쟁력면에서 핀란드와 함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 참조). 또한 경영, 엔지니어링, 컴퓨터과학 및 과학에 대한 재교육도 60%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³³⁾

31) PricewaterhouseCoopers(2001), p. 29.

32) 심지어 생산공장 직원까지 영어사용이 가능하며, 애란어는 아일랜드 일부지방에만 사용될 뿐이다.

33) PricewaterhouseCoopers(2001), p. 37.

〈그림 4-1〉 교육시스템 경쟁력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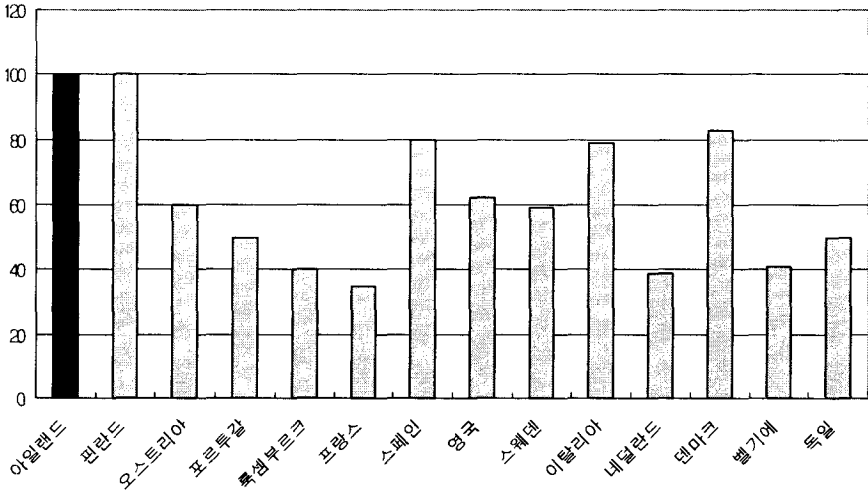


자료: IMD(2001), p. 438.

이 외에도 아일랜드는 정보통신 관련 교육에 있어서도 여타 EU 회원국보다 앞서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정부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오고 있다. 2000년 현재 아일랜드는 핀란드와 함께 모든 초등학교에서 인터넷 이용이 100% 가능하며, 중학교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100% 가능하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초등학교 인터넷 이용률(2000년 기준)

(단위: %)



자료: 유럽집행위원회.

특히 아일랜드는 ICT 산업과 관련된 교육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해 오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 교육기관, 기업들은 ICT 산업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을 배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는데, 그 결과 현재 아일랜드 대학생의 10명 중 6명이 엔지니어링, 과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고학력 수준의 대다수 노동인력들이 미국이나 인근 영국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이민을 나갔었지만, 아일랜드의 ICT 산업이 발전하면서부터는 이민자수보다 역이민수가 더 많은 상황이다(표 4-4 참조).

〈표 4-4〉 아일랜드의 이민 추이

(단위: 천 명)

|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 이민 | 34.8 | 33.1 | 31.2 | 29.0 | 21.2 | 29.0 |
| 역이민 | 30.1 | 31.2 | 39.2 | 44.0 | 44.0 | 47.5 |
| 순이동 | -4.7 | -1.9 | 8.0 | 15.0 | 22.8 | 18.5 |

자료: 아일랜드 통계청; IDA Ireland (2001f), p. 5.

다. 낮은 운영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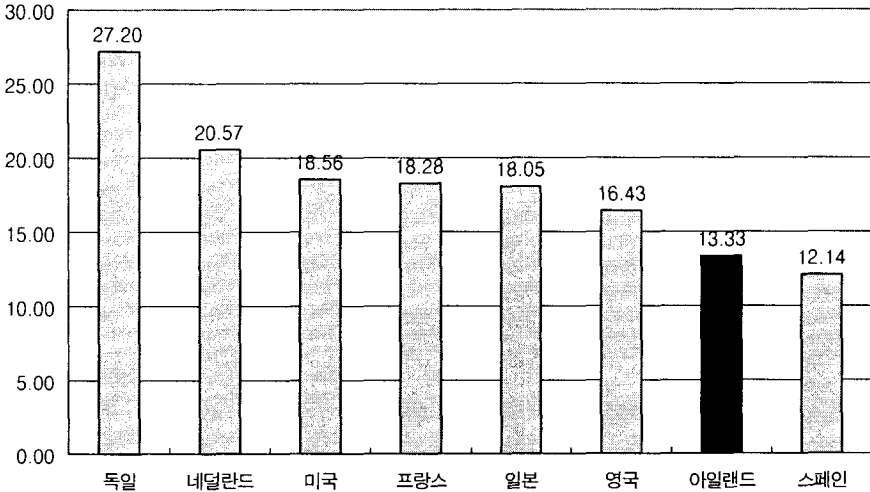
아일랜드는 여타 EU 회원국들에 비해 사업 및 운영비용도 저렴하다. 먼저, 아일랜드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10년 동안 여타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³⁴⁾ 그리고 임금수준도 2000년 현재 시간당 13달러 수준으로 높은 기술력과 생산성에 비해 여타 유럽국가들보다 낮은 편이다(그림 4-3 참조). 주 근무시간도 평균 41시간으로 여타 유럽국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³⁵⁾

34) 1995년 이후 1999년까지 1%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해 오다가 2000년에는 5.6%로 급등하였지만, 이는 고성장에 따른 경기과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01년 말 현재 물가상승률은 3%대로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35) 아일랜드에는 공식적인 국가공휴일이 9일이며, 일요일을 포함하면 1년에 총 29일이 공휴일이다. 이는 서유럽평균 공휴일이 38.2일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공휴일이 적은 편이다.

〈그림 4-3〉 시간당 임금수준(2000년 기준)

(단위: 미달러)



자료: Pricewaterhouse Coopers(2001), p. 2; 미국 노동부.

그리고 원거리 통신비용도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³⁶⁾ 먼저 아일랜드는 여타 EU 회원국보다는 조기에 원격통신 관련 인프라에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저렴하고 고품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일랜드는 수신자부담 및 국제전화 서비스를 목표로 전유럽의 원거리 통신연결을 위한 “feature rich” 망 구축을 위해 35억 달러를 투자하여³⁷⁾ 전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통신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내에서도 국제수신자부담 전화비용이 가장 저렴한 상황이다.

아일랜드는 전자상거래(e-commerce) 관련 법안도 유럽에서 처음으로 마

36) 아일랜드에 외국기업들의 콜센터가 많은 이유중 하나이다.

37) 이외에도 아일랜드는 통신인프라와 관련하여 전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네트워크에 5천만 아일랜드 파운드를, 광역네트워크 사업에는 2억 아일랜드 파운드를 투자하였다.

런한 국가로,³⁸⁾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해 많은 외국기업들이 전자상거래의 전초기지로서 아일랜드를 택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전자정부(e-Government)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현재 1억 아일랜드 파운드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정부의 지원정책

가. 담당 정부기관

아일랜드 정부의 ICT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초점은 자국기업의 기술력 및 마케팅 능력의 열세와 내수시장의 협소를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외국기업들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일랜드 정부는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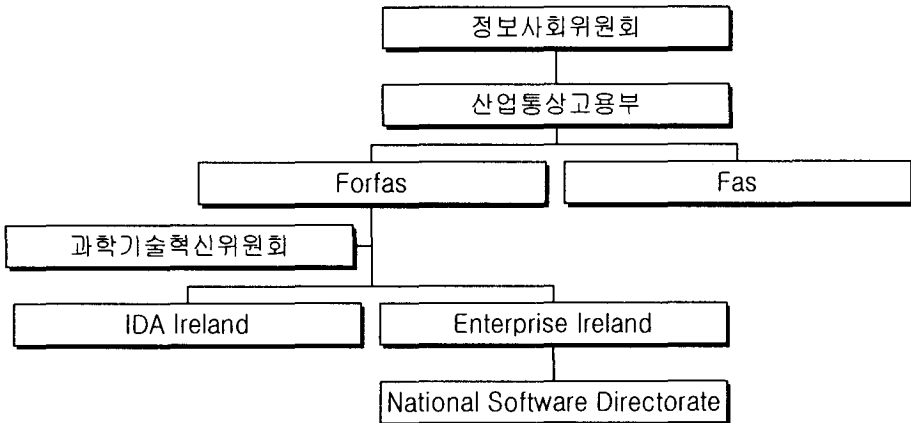
ICT 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일랜드의 전체적인 정보사회화전략은 총리실 산하의 정보사회위원회(ISC: Information Society Commission)가 담당하며, ICT 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고용부(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Employment)가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Forfás와 FÁS를 통해 ICT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Forfás는 산업통상고용부의 산업, 통상,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정책 자문기구로서 산업통상고용부가 ICT 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시 자문을 제공하고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³⁹⁾ Forfás도

38) 2000년 7월 10일 전자서류, 전자계약,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안을 발효시켰다.

39) <http://www.forfas.ie>

이러한 정책자문을 정부에 제공시 과학기술혁신위원회(ICSTI: Irish 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로부터 자문을 얻고 있다.⁴⁰⁾ 그러나 정부의 실질적인 ICT 산업지원은 Forfás 산하의 IDA Ireland와 Enterprise Ireland를 통해 이루어진다. 양기관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투자개발청(IDA: Invest and Development Agency)⁴¹⁾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Enterprise Ireland⁴²⁾는 국내기업들의 성장과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Enterprise Ireland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전담하는 기관인 National Software Directorate를 산하에 별도로 두고 있다. 산업통상 고용부는 또한 ICT 산업부문의 고용확충 및 촉진을 FÁS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즉, FÁS는 실업자 전환교육이나 기술인력 충원 등을 통해 ICT 분야에서 고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4〉 아일랜드의 ICT 산업 육성관련 정부기관



40) <http://www.forfas.ie/ics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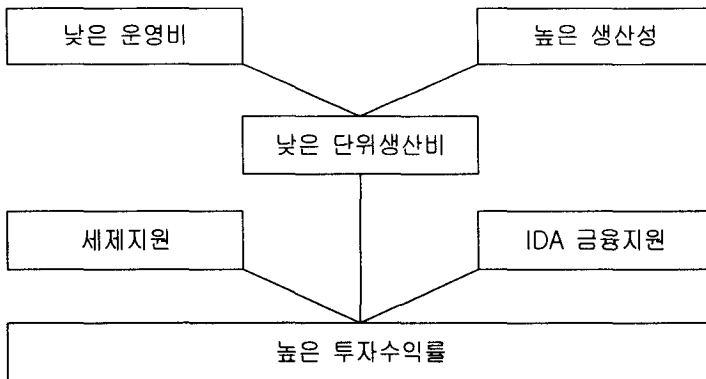
41) <http://www.ida.ie>

42) <http://www.enterprise-ireland.com>

나. IDA의 외국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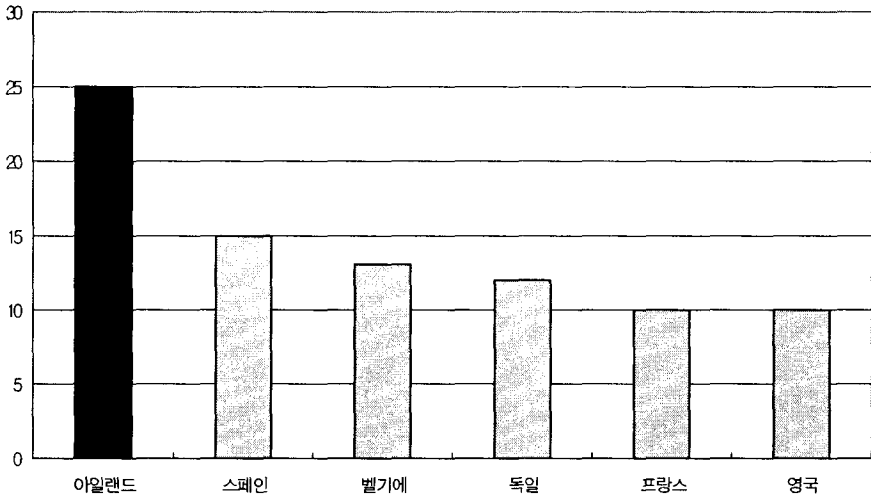
IDA의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는 낮은 법인세에서부터 금융지원 까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IDA의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의 주요 목표는 외국기업들이 최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는 낮은 운영비용, 낮은 임금, 저렴한 원거리 통신비용 등에서도 아일랜드의 투자매력도를 찾아볼 수 있다. 아일랜드가 지리적으로 유럽의 최서쪽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정비된 인프라와 경쟁적인 운영비용, 낮은 법인세, 금융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투자지로 각광받고 있다(그림 4-5 참조). PricewaterhouseCoopers(2001)에 따르면 미국기업들의 경우 아일랜드에서의 평균투자수익률이 25%로 여타 유럽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6 참조).

(그림 4-5) 對아일랜드 외국기업들의 높은 투자수익률 요인



(그림 4-6) 미국 투자기업의 국가별 세후 평균 투자수익률

(단위: %)



자료: PricewaterhouseCoopers(2001), p. 11.

1) 세제지원

아일랜드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10%로 여타 유럽국들의 평균 법인세율인 23%의 절반수준 이하이다(그림 4-7 참조). 2003년부터는 법인세율이 12.5%로 상향조정되지만 그렇더라도 여타 유럽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틀글 4-1 참조).

그리고 영업이익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도 2001년 4월 6일부터는 20%를 적용하고 있지만⁴³⁾⁴⁴⁾ 이전에는 면제되었던 것도 외국기업들에게 있어 큰 투자매력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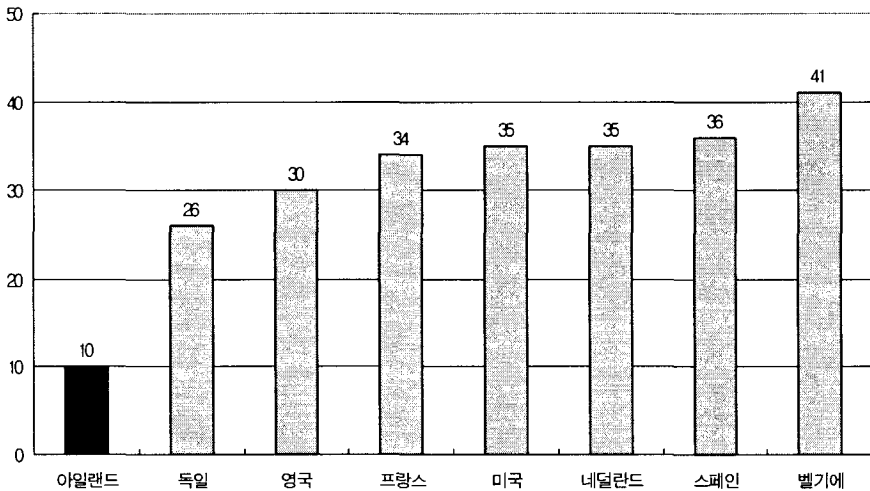
43) 해당 국가별로 0~20%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44) ▶아일랜드 기업, ▶자선 및 연금기금, ▶EU 역내기업 등은 원천징수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특정국가⁴⁵⁾와 이중관세금지 협약도 체결하고 있어 해당국가의 기업들은 이중으로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기업이나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로열티나 특허권 이용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림 4-7〉 서유럽국가들의 법인세율
(제조업과 서비스부문, 2000년 말 기준)

(단위 : %)



자료: IDA Ireland(2001a), p. 2.

45)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이집트, 인도,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잠비아

<틀글 4-1> 10%의 법인세가 계속 적용되는 부문

2003년부터는 모든 부문에서 1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에 해당되는 부문은 정하는 시기까지 기존 10%의 법인세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합의되었다.

- ▶ 1998년 7월 23일이나 이전에 이루어진 제조/서비스(2010년 12월 31일까지)
- ▶ 1998년 7월 31일이나 이전에 보조금지원이 허용된 제조/서비스(2010년 12월 31일까지)
- ▶ 1998년 7월 31일이나 이전에 더블린 소재 국제금융서비스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er)에서 국제금융서비스를 개시했었던 부문(2005년 12월 31일까지)
- ▶ 1998년 5월 31일이나 이전에 Shannon 공항부근에서의 운영이 허가된 부문(2005년 12월 31일까지)
- ▶ 영업이익이 253,946유로를 넘지 않거나 신생기업인 경우

자료: PricewaterhouseCoopers(2001), p. 37.

2) 금융지원(Grants)

IDA는 아일랜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의 초기사업비용(start-up costs)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금융지원은 무상으로 공여되며, 사업전망과 아일랜드 경제에 대한 기여도, 지리적인 위치⁴⁶⁾를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가) 현금지원(Capital grants)

IDA는 아일랜드에 투자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건물, 공장부지, 기계설비와 같은 기업운영을 위한 초기사업비용에 대한 현금지원을 제공하고 있

46) 더블린 근교에서의 투자보다는 Border나 Midlands, 아일랜드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시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더 커진다.

다. 지원규모는 EU의 State Aid Rule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 40%까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의 중요도와 투자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더블린 콜센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물임대료 100%를 IDA가 지원하였으며, 국외 통신요금도 50% 이상 절감시켜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⁴⁷⁾

나) 고용촉진지원(Employment grants)

고용에 대한 지원금은 건물이나 공장부지와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아일랜드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는 외국기업이나 국제서비스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지원규모는 프로젝트의 위치나 투자수준, 고용인의 업무수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일자리 한 개당 1,250~12,500유로가 지원된다.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초기에 동 자금을 제공받은 뒤 일자리를 없애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IDA는 지원금도 일자리가 창출되면 먼저 지원금의 절반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일년 후에도 해당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면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도 풀타임 고용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업무의 성격상 파트타임이 많을 경우에는 2개의 파트타임을 1개의 풀타임 고용에 상응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 훈련지원(Training grants)

IDA는 아일랜드에 이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인들에 대한 대규모 훈련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훈련기간동안 훈련자들의 임금과 아일랜드와 해외에서의 여행 및 활동에 대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동 지원은 훈련생들을 감독하

47) 이는 대한항공이 처음으로 더블린에 콜센터를 설립한 데 따른 특별지원이었다.

거나 지원하기 위한 강사, 기술자문가, 컨설턴트 비용도 포함된다. 아일랜드 정부의 훈련 및 고용 촉진기관인 FÁS도 동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ID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기업들이 IDA의 지원조건에 부합하도록 자문을 제공해 주고 있다.

라) 연구개발 지원(R&D grants)

IDA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일랜드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지원되는데, 첫째는 R&D 시설이나 설비들을 확장하거나 갱신할 때 주어지는 경우와 둘째는 아일랜드에서 현격한 연구개발 실적을 올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다. 지원조건은 제품 및 개발과정이 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질 수 있거나 국제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서비스에 한해서 지원된다.

다. Enterprise Ireland의 국내기업 지원

Enterprise Ireland는 외국기업에 비해 기술력이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국내기업들의 성장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에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Enterprise Ireland는 아일랜드 국내기업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해외로의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금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이며, 신생기업의 착수비용(start-up cost)을 위해 자본투자금, 훈련비, 종업원급여 등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성장계획, 국제화, 해외시장진출 등에 대한 기술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1) 금융지원

Enterprise Ireland는 국내기업의 성장과 수출지원을 위해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nterprise Ireland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먼저 해당기업이 아일랜드내에 거주하며, 제조업(manufacturing)이나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서비스(internationally traded service)를 제공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둘째, 국내기업이어야 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즉, 기업전략, 연구개발 및 마케팅, 경영 등이 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으로 간주되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사업개시부터 최소한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Enterprise Ireland 측에서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5만 유로에서 125만 유로까지 지원된다. 동 지원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의 조건 3가지에만 부합하면 모든 기업들이 동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Enterprise Ireland는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도 금융지원(Research, Technology and Innovation grants)을 제공하고 있는 데 지원조건이 까다로와 쉽게 지원 받기 힘들다. 연구개발 금융지원은 아일랜드의 7개년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9만5천 유로 이하의 프로젝트는 비경쟁적으로 지원되는 반면 그 이상이면 경쟁적으로 지원된다.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조건과 같이 아일랜드내에 거주하는 제조업이나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둘째, 단독기업도 상관없지만, 기업간의 협력사업이나, 기업 및 대학이나 연구소간의 공동 프로젝트일 경우 지원 받을 확률이 높으며 또한 Enterprise Ireland측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회사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총 사업비용의 25~45%까지 지원되며, 최고 44만 유로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융지원 외에도 Enterprise Ireland는 기업들의 자금조

달을 위해 직접 벤처캐피탈 자금을 조성해 주기도 하며,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위험을 분담해주기 위해 Enterprise Ireland가 직접 주주가 되어 재원을 조달해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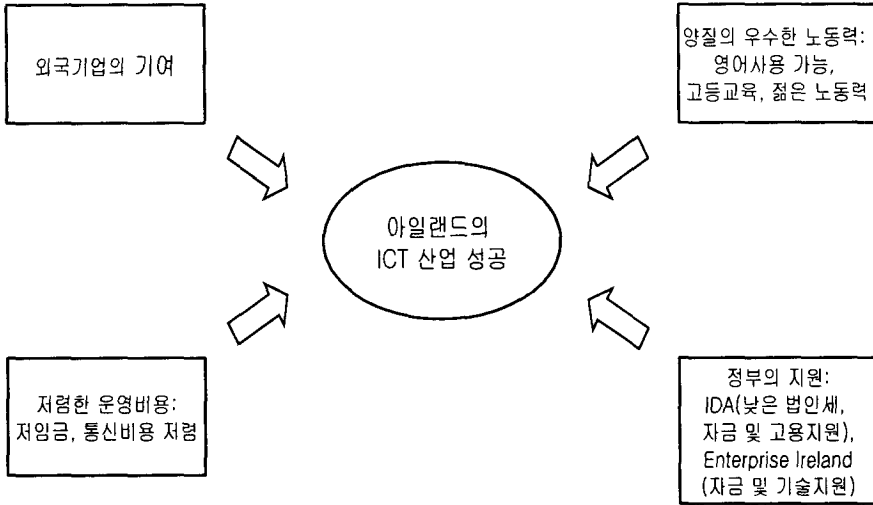
2) 기술지원 및 자문제공

Enterprise Ireland는 신생기업들의 사업계획, 정보제공, 생산 및 운영계획 지원, 마케팅 및 사업개발 지원,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그리고 외국기업과의 협력과 외국바이어사들과의 연결도 알선하며, 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 대행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하반기 이후 ICT 경기침체와 더불어 Enterprise Ireland에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Enterprise Ireland도 기술력과 경쟁력을 겸비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3)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Enterprise Ireland는 아일랜드 ICT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National Software Directorate (NSD)를 두고 있다. 동 센터의 역할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성과 기술향상을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동향이나, 해외로의 마케팅, 창업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림 4-8〉 아일랜드의 ICT 산업 성공요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아일랜드는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영국에 인접한 소규모 농업빈국으로만 인식되어 왔었다. 아일랜드는 1960년대 이후에야 4%대의 유럽 평균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고, 1980년대에는 정치불안과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통해 현재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고 있다. 아일랜드가 이렇게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외국기업들의 투자에 기인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국내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수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여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주도한 데 따른 것이다. 즉, 아일랜드의 경우 정부가 의도적으로 법인세 인하, 각종 금융 및 기술지원 제공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들 외국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킨 경우이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도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보통신산업 침체와 함께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일랜드의 경우, 2001년 초 IBM, HP, Dell 등의 대규모 감원을 시작으로 컴퓨터 조립업체인 Gateway社는 8월 더블린 공장을 폐쇄하였으며, General Semiconductor社도 코크 공장을 폐쇄하는 등 외국기업들의 투자철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에 들어서만도 정보통신부문에서의 실업자수가 4,500명에 이른다.⁴⁸⁾ 이는 외국 정보통신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총고용인수가 약

48) Gateway 1,100명, General Semiconductor 670명, SMGT 70명, Henniges 170명, Volex 140명, Nortel 90명, Dell 325명, Teradyne 80명, CTM Southboro 68명, Xerox 500명, Quantum 72명, Tellabs 150명, 3Com 140명, Ericsson 100명, Modus Media 50명, Intel 170명, Trend Tech 100명, Industrial Print 90명, Wexal Int. 167명 등.

52,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실업자수이다. 이에 대한 아일랜드 정부의 입장은 4,500명의 실업자수가 발생하였더라도 2001년 정보통신부 문에서의 신규고용수가 이미 2,500명을 넘어서고 있어 실제 실업자는 2,000명 정도로 여타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⁴⁹⁾ 그리고 외국기업 특히 미국기업들은 정보통신산업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면 아일랜드가 여타 유럽국보다는 투자에 있어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아일랜드경제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상승하면서 그동안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저임금 및 낮은 건물 및 토지임대료는 2001년에 들어 급상승하고 있으며, 도로 및 항만 등 사회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투자매력도도 그만큼 낮아진 상황이다. 사실 그동안 외국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한 이유는 영어사용이 가능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임금이 여타 유럽국들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과 건물 및 토지 임대료와 통신비용 등 인프라시설이 저렴하다는 점 두 가지가 가장 큰 투자요인이었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기업들의 기업주가 아일랜드인으로 모국에 대한 투자개념이 큰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요인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아일랜드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과 같이 단순히 컴퓨터조립 및 소프트웨어제품 생산 등 제조중심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전자상거래 및 생명공학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 정부는 현재 총리의 지휘하에 더블린을 전세계적인 “Digital-Hub”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실행중이다. Digital-Hub 구상 1단계로 먼저 더블린에 2,800만 아일랜드 파운드를 투자하여 “Media-Lap Europe” 설치를 추진 중이다. Media-Lap Europe 계획은 더블린

49) *Irish Times*(2001), “Job losses at IDA-backed tech firms reach 4,500,” August 24.

소재 기네스 맥주공장부지 일부를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연구단지를 조성한 후, 먼저 미국 MIT 연구진들에게 무상으로 연구단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MIT 연구진이 아일랜드 정부의 지원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나간다면 구전효과를 통해 여타 대학 및 연구소도 더블린에 몰려들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는 현재와 같이 아일랜드에 유명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 것도 1984년 Microsoft社가 먼저 아일랜드에 투자한 이후 IBM, Dell 등도 경쟁적으로 아일랜드에 투자하게 된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 요인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고찰해 본 결과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도 아일랜드와 같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을 성장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일랜드가 외국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먼저 한국은 아일랜드와 같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으며, 아일랜드 정부가 제공하는 낮은 법인세, 건물 및 토지 임대료 지원, 인프라 지원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외국기업에 의존할 만큼 정보통신산업이 낙후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이미 Nokia TMC, 한국소니전자, 한국 HP, 모토로라코리아, 한국 IBM, 컴팩코리아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⁵⁰⁾ 이러한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아일랜드의 경우와 같은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보다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외환위기 이후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전 분야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들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아시아내에서 가장 투명성이 높은 국가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50) 2000년 동안 Nokia TMC, 한국소니전자, 한국 HP, 모토로라코리아 등 외국기업들의 한국에서의 매출액은 각각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있어 아일랜드와 같은 투자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외국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투자환경은 더 많은 외국 정보통신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정보통신산업도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도 아일랜드의 “Digital-Hub” 전략과 같은 21세기에 맞는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아일랜드의 Digital-Hub 구상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크하여 상암지구에 171천평 규모의 디지털·미디어 시티(DMC)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⁵¹⁾ 외국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한 또 다른 이유는 아일랜드를 인근 EU 회원국이나 중동 및 아프리카 등으로의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은 것이다. 즉, 아일랜드에서 생산한 제품은 역내무관세를 이용하여 쉽게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어떠한 경제블록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아일랜드와 같은 효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한국이 가장 적합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미디어시티와 같은 전략들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이 이러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WTO 가입과 함께 거대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을 위해서 수많은 외국 정보통신기업들이 한국을 전초기지로 투자해 올 것으로 기대된다.

51) 서울시는 “Media-Lab Europe”을 벤치마크하기 위해 2001년 9월 더블린을 방문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시티는 기업단지, 산업지원시설, 연구·교육시설을 한 곳에 모아둠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산업자원부. 2001. 『금년도 한국기업의 IT 투자 대폭 증가 전망』 보도자료 4. 13. 서울: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7. 「정보통신산업 수출지원 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 ISSUE 제9권 14호 통권 93호.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제2의 실리콘밸리를 위한 경쟁」.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연구시리즈 99-04.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부. 2001. 『2001년 정보통신산업 해외수출 지원방안』. 보도자료 4. 11. 서울: 정보통신부.

<해외문헌>

- Arthur Andersen. 2001. *Doing Business in Ireland*. Dublin: Arthur Andersen.
- Enterprise Ireland. 1999. *Annual Report*. Dublin: Enterprise Ireland.
- Enterprise Ireland. 2000. *Annual Report*. Dublin: Enterprise Ireland.
- ESIS. 2000. *Information Society indicator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Brussels: ESIS.
- Espicom Business Intelligence. 2001. *Ireland 1999: Communications Markets Analysis*. United Kingdom: Espicom Business Intelligence.
- European Commission. 2001. *Annual Report on Structural Reforms 2001: Report addressed to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IDA Ireland. 2000. *Ireland: Vital Statistics*. Dublin: IDA Ireland.
- _____. 2001a. *Achieve European competitive advantage: Guide to tax and financial incentives in Ireland*. Dublin: IDA Ireland.
- _____. 2001b. *Achieve European competitive advantage in call centres*. Dublin: IDA Ireland.
- _____. 2001c. *Achieve European competitive advantage in Ireland*. Dublin: IDA Ireland.

- _____. 2001d. *Achieve European competitive advantage in software*. Dublin: IDA Ireland.
- _____. 2001e. *Ireland: Employment Legislation*. Dublin: IDA Ireland.
- _____. 2001f. *Ireland: Vital Statistics*. Dublin: IDA Ireland.
- IDC/World Times Survey. 2001. *The 2001 Information Society Index*.
- IMD. 2001.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 Lausann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Isabelle Chatric & Paul Wraight. 2000. *Public Strategie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Brussels: ESIS.
- ITU. 2001.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Update*. Geneva: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t.
- McLister, Patrica. 2001. *Irish Software Industry*. Dublin: Enterprise Ireland.
- OECD. 2000a.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 _____. 2000b.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 _____. 2000c. *Measuring the ICT Sector. October*.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 _____. 2000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in Industry 1977-1998*.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 _____. 2000e.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 _____. 2000f. *The Software Sector: Growth, Structure and policy Issues*.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 _____. 2001a. *Communication Outlook*.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 _____. 2001b. *Ireland*. OECD Economic Surveys.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 _____. 2001c.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Toward a Knowledge-based Economy*.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 PricewaterhouseCoopers. 2001. *Doing Business and Investing in Ireland*. Dublin: PricewaterhouseCoopers.

Executive Summary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in Ireland: Development and Government Support Policy

Young-Gon Park

The Korea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has faced a recession following the worldwide slowdown of the ICT industry. But multinational companies, such as Nokia TMC, Korea HP, Korea IBM and Compaq Korea, are expanding their investment in Korea and increasing their share in the Korean ICT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uccessful case of Ireland's ICT industry and draw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ICT industry.

Ireland was considered as a small agricultural country adjacent to the United Kingdom before its ICT industry had developed. But since the mid-1990's Ireland has achieved the highest economic growth rate among the OECD countries. This result did not occur from technology and export of Irish companies but from the investment of foreign companies. The Irish government provides foreign companies with various incentives, including low corporate tax,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R&D assistance. Along with these investment incentives, English-speaking labor force, lower wages and low telecommunication costs help to attract foreign companies.

Recently, the Irish ICT industry has faced a slowdown due to the recession of the U.S. ICT industry from the second half of 2000. Foreign companies like IBM, HP, and Dell have restructured from early 2001, while curtailing personnel and closing their plants, etc. This decrease of foreign investment is resulted from not only the recession of the ICT industry but also lower investment incentives. Labor wages and rent-costs of land and buildings have risen recently because of fast economic growth after the mid-1990's. Thus the Irish government has currently begun to seek foreign investment in high value-added sectors like e-commerce and bio-technology instead of computer and software manufacturing. The "Digital-Hub" initiative implemented by the Irish government is a part of the government's revised investment-attracting strategy.

After examining the facilitating factors of the Irish ICT industry and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this study learns that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consider ways to develop the ICT industry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Furthermore, the sales volume of foreign companies invested in Korea are over one trillion won. So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d enhance Korea's investment attractiveness to foreign investors. But it is important to provide foreign companies with favorable environment in which foreign companies can conduct business efficiently, instead of providing direct-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Such favorable investment environment will attract foreign investors and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Korea's ICT industry.

KIEP 발간자료목록(1997~2001. 12)

■ 지역리포트

| | | |
|-------|-------------------------------|-----|
| 00-01 |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 朴英鎬 |
| 01-01 |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 金恩志 |
| 01-02 |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 朴映坤 |
| 01-03 | 유럽경제통합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 鄭厚榮 |
| 01-04 |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 朴映坤 |

■ 지역연구회시리즈

| | | |
|-------|----------------------------------------|-----------|
| 00-01 |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 鄭銀淑 |
| 00-02 |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 吳勇錫 |
| 00-03 |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元容杰 |
| 00-04 |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 李榮洙 · 徐煥周 |
| 00-05 | 日·北 經濟協力の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 申志鎬 |
| 00-06 |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 朴濟勳 |
| 00-07 |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화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 蔡熙律 |
| 00-08 |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 張善德 |
| 00-09 |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 金正湜 |
| 00-10 |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 嚴久鎬 |
| 00-11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 楊平燮 |
| 00-12 | 印度 經濟改革 10年の 評價와 向後課題 | 金讚浣 |
| 00-13 |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 金昌男 · 千寅鎬 |
| 00-14 |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 高在模 · 全載旭 |
| 00-15 |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 辛源龍 |
| 00-16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尹玄德 |
| 00-17 |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李殷九 |
| 01-01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 金泳世 |
| 01-02 |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朴繁洵 |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 | |
|-------|----------------------------------------|---------|
| 01-03 |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 李忠烈 |
| 01-04 | 일본의 버블붕괴와 잃어버린 10년 | 姜應善 |
| 01-05 |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 鄭基虎·李滿基 |
| 01-06 |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 沈義燮·李光勳 |
| 01-07 |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 尹澤東 |

■ 정책연구

| | | |
|-------|---------------------------------------|--------------|
| 97-01 |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政府의 對外通商政策 | 王允鍾 |
| 97-02 |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 王允鍾 編著 |
| 97-03 |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方案 | 金準東 |
| 97-04 |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 崔秀雄 |
| 97-05 |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과 示唆點 | 金鍾範 |
| 97-06 |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 李鍾華·李晟鳳 |
| 97-07 |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 | 王允鍾·羅秀燁 |
| 97-08 | 中國經濟의 浮上和 韓國의 對應 | 李昌在外 |
| 97-09 |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 | 金南斗 外 |
| 97-10 |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 趙明哲 |
| 97-11 | 韓·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 鄭余泉 |
| 97-12 |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課題 | 金元鎬 外 |
| 97-13 |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 金寬浩 外 |
| 97-14 |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善方案 | 趙顯垓 |
| 98-01 | IMF體制下의 韓國經濟(1997.12~1998.6): 綜合深層報告Ⅰ | 張亨壽·王允鍾 |
| 98-02 | 中國 金融改革의 現況과 과제 | 李章揆 外 |
| 98-03 |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 | 王允鍾·金琮根 |
| 98-04 |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 權泰亨 外 |
| 98-05 |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 成克濟 |
| 98-06 | 1999년 세계경제전망 | 王允鍾 編 |
| 98-07 |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柳在元·李弘求 |
| 98-08 |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 李昌在外 |
| 98-09 |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투자인센티브 | 李晟鳳·李炯根 |
| 98-10 |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自由地域 | 李晟鳳 外 |
| 98-11 |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張亨壽·李昌在外·朴映坤 |
| 98-12 |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 崔秀雄 |
| 98-13 |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開展方向 | 徐錫興 |

-
- 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 II
Byung-il Choi · Eun Mee Kim
- 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張亨壽 · 元容杰
- 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鄭仁教
- 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研究 金寬浩 · 李性美
- 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 尹昌仁
- 98-19 中·東區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현황과 전망 鄭余泉 · 崔秉熙 · 韓貞澈
- 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趙明哲 · 洪翼杓
- 98-21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全載旭 · 崔義炫
-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曹琮和 編
- 99-02 韓·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金元鎬 編
-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金博洙 · 王允鍾 · 申東和 · 李炯根
-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王允鍾 · 鄭在完 · 金琮根 · 李鴻培
-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曹琮和 編
-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평가 安炯徒 編著
-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1] 동북아 경제협력: 총괄편 李昌在
-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2]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鄭仁教 外
-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金益洙
- 99-10 東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崔秀雄
- 99-1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I(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2]
黃祥仁 · 王允鍾 · 李晟鳳
-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3]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李晟鳳 外
-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4]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王允鍾 外
-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 · 蔡旭 · 金準東 · 宋有哲 · 尹美京 · 徐暢培
-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金準東 · 姜仁洙
-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鄭余泉
- 00-04 WTO 뉴라운드 工產品協商的 시나리오별 實證分析和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 · 李明憲 · 朱文培
-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金準東 · 李長榮 · 李漢煥 · 金龍奎 · 崔重熹 · 許琮 · 李漳源
-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宋有哲 · 朴芝賢 · 李載玉 · 魚明根 · 任廷彬
-

| | | |
|-------|--------------------------------------------------------------|-----------------|
| 00-07 |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 鄭仁教·李景姬 |
| 00-08 |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 蔡 旭·金準東·梁俊哲 |
| 00-09 |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 趙明哲·權 栗·李哲元·金恩志 |
| 00-10 |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主要쟁점연구 | 金世植·楊斗鏞·王允鍾·黃祥仁 |
| 00-11 |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 尹昌仁 外 |
| 00-12 |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 趙明哲·洪翼杓 |
| 00-13 | WTO 뉴라운드協商的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 蔡 旭·崔洛均 |
| 00-14 | 선진국 主要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 尹昌仁·韓宅煥·庾相喜 |
| 00-15 |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 李鍾華 |
| 00-16 |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 宋有哲·朴芝賢 |
| 01-01 | 무역개방화와 제조부문의 변화 | 南相烈 |
| 01-02 |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教 |
| 01-03 |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 黃祥仁·金寅培·辛仁錫 |
| 01-04 |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鄭仁教 |
| 01-05 |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 金尙謙·朴仁元 |
| 01-06 |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 曹琮和·金于珍 |
| 01-07 |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 梁俊哲·金鴻律 |
| 01-08 |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 尹德龍·朴淳讚 |
| 01-09 |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李鍾華·朴淳讚 |
| 01-10 |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 宋有哲 外 |
| 01-11 |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 金準東 外 |
| 01-12 |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 崔洛均 外 |
| 01-13 |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 尹昌仁 外 |
| 01-14 |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 蔡 旭·徐暢培 |

■ 조사분석

| | | |
|-------|--------------------------|-----|
| 97-01 |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 朴相守 |
| 97-02 |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 鄭在完 |
| 97-03 |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 鄭在完 |

| | | |
|-------|-----------------------------------------------------|-------------|
| 97-04 |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 | 李哲元 |
| 97-05 |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 徐承源 |
| 97-06 |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 鄭在完·權耿德 |
| 97-07 |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 李聖揆·崔秉熙 |
| 97-08 |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 金完仲 |
| 97-09 |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 | 崔義炫 |
| 97-10 |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研究 | 蔡 旭 |
| 97-11 |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美國의 「휘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 李鎬生 |
| 97-12 |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 權 栗 |
| 97-13 |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 洪翼杓 |
| 97-14 |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 金琮根 |
| 97-15 |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 朴月羅 |
| 97-16 |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 投資制度 | 李炯根 |
| 98-01 |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變化 | 羅成燮 |
| 98-02 |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전망 | 鄭仁教·李昌在 編著 |
| 98-03 |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 趙潤濟·金鍾燮 |
| 98-04 |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 李永雨 |
| 98-05 |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障礙요인 조사연구 | 鄭聖哲·李明振 |
| 98-06 |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 朴成勳 |
| 98-07 |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 | 李載裕·李載榮 |
| 98-08 |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 朴泰鎬·文字植·白珍玢 |
| 98-09 |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 孫正植·韓弘烈 |
| 98-10 |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 朴氣弘 |
| 98-11 |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통상환경의 變化 | 李鍾華 外 |
| 98-12 |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 김애리 |
| 98-13 |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 蔡 旭 |
| 98-14 |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 蔡 旭·徐暢培 |
| 98-15 |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 金裕燦·李晟鳳 |
| 99-01 | OECD연구시리즈②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李晟鳳·李炯根 |
| 99-02 |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 金琮根 |
| 00-01 | 투명性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 朴映坤·金于珍·羅秀輝 |
| 00-02 | 주요 이슈별 韓·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 梁俊哲·金鴻律 |

-
-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金元鎬 · 姜文盛 · 羅秀燁 · 金眞梧
- 00-05 國際協力體 설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
 張亨壽 · 朴映坤
-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鄭在完
- 01-02 아프리카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수출확대 방안
 朴英鎬
-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孫讚鉉 · 尹眞那
- 01-04 WTO 農業協商 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宋有哲 · 朴芝賢
- 01-05 韓 · 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金良姬 · 金鍾杰
-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鄭余泉
-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權奇洙
-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權 栗
-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金眞梧
- 01-10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李哲元
-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 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尹美京 · 李性美
- 01-12 北韓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南北 협력방안
 趙明哲
-

朴映坤

한양대학교 무역학과 졸업(1995)

한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제학 석사(199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ygpark@kiep.go.kr)

著書 및 論文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공저, 1999)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공저, 2000) 외

지역리포트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2001년 12월 20일 인쇄

200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한라인쇄 (02)503-3011 대표: 박노부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 · 複製를 금함】

ISBN 89-322-6042-7 94320
89-322-6017-6(세트)

정가 5,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성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 회원종류 | 배포자료 | 연간회비 | | |
|------|------------------|--------|------|--------|
| | | 기관회원 | 개인회원 | 연구자회원* |
| S |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A | (반년간)대외경제연구 | 1만 2천원 | | 1만원 |
| B | (월간)KIEP세계경제 | 5만원 | | 2만 5천원 |
| C | (주간)KIEP주간세계경제분석 | 5만원 | | 2만 5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選報(인쇄물), 전문가풀 토의자료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 가입신청서

| | | |
|---------------|-------------|------|
| 기관명 (성명) | (한글) | (한문) |
| | (영문: 약호 포함) | |
| 대표자 | | |
| 발간물 수령주소 | 우편번호 | |
| 담당자 연락처 | 전화 | FAX |
| 회원소개 (간략히) | | |
| 사업자 등록번호 | 종목 | |

회원분류(해당년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 | | | | |
|--------------------------------|------------|-----------|----------|---------|
| 기관 회원 <input type="checkbox"/> | S 발간물일체 | A 반년간지 | B 월간지 | C 주보 |
| 개인 회원 <input type="checkbox"/> | | | | |
|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 | |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